

# 유아와 교사가 경험하는 실존적 공간으로서 유치원의 장소성

권선영  
경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

## A Sense of Place of Kindergartens as Existential Space in which Children and Teachers Experience

Sun-Young Kw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 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유아들이 유치원이라는 공간을 실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형성되는 장소성의 의미를 유아들의 놀이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유치원의 모든 공간을 연구관찰 대상범위로 선택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유아 관찰과 비형식 면담 교사 심층면담을 통해 유아들의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바깥놀이를 중심으로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 유아와 교사가 경험하는 실존적 공간으로서 유치원의 장소성은 경험과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놀이의 공동생산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교육과 생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유아들의 경험한 유치원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 소통에 의해 공유된 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치원의 장소성은 유아들의 실존적인 경험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공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실존적 공간, 장소성, 유치원, 유아, 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place that is formed by children experiencing the space of kindergarten existentially. For this purpose, the indoor and outdoor spaces of kindergarten, which is a real place where infants experience, are selected as the study observation category. In order to carry out the research, video recording was done focusing on children 's free choice activity time and outdoor play through infant observation and non - formal interview. As a result of research, it is found that the place nature of kindergarten as an existential space experienced by infant and teacher as a space that is formed in experience and relation, place as a common production space of play, place as a space where education and life coexist, It was shown that it represents a special space created by experienced kindergarten, and a space characteristic as a space shared by communication. The place of kindergarten has a relationship with the existential experiences of infants, suggesting that teachers need a reinterpretation of space.

**Key Words** : Existential Space, A Sense of Place, Kindergartens, Child, Teache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유치원은 유아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

육공간이라고 정의되며, 어떤 교육적 관점으로 실천하느냐에 따라 유치원의 공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교육 공간이란 의도적으로 정형화된 '교실'만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

\*Summary of Doctoral Thesis of Kyung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2017.

\*Corresponding Author : Sun-Young Kwon(3881511@hanmail.net)

Received November 17, 2017

Revised December 22,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8

공간에서 다양하게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유치원의 공간을 제한시키지 않고 물리적인 교육시설과 더불어 유아들의 경험과 관계를 재현하는 확장된 공간으로 사유할 수 있다. 이는 유아교육공간이 유아들에 의해 체험되는 구체적인 공간, 실제로 유아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이 유아들의 실제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의 공간은 교육 환경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절대화·객관화된 발달론적 교육관을 실천하는 장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인식들은 현 교육과정의 기초에도 맞지 않는 관점이며 경험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1].

유아들은 유치원의 공간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인간은 공간속에서 이야기를 만들며 기억하고 체험 하면서 일련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주변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2]. 또한 인간은 주어진 환경과 필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이며 공간 속에서 이해한 행위의 관계, 의미와 질서를 표현하려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3]. 더불어 공간 또한 그곳에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이해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4]. 이때 공간은 인간의 행위, 관계, 상호작용에 인과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것은 공간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다[5].

Schultz[3]에 의하면, 인간이 공간에 대하여 흥미를 갖는 까닭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의미 실현을 위해 인간 중심으로 주변의 상황을 해석하는 가운데 실존적 공간의 의미는 찾을 수 있다. 이때 실존공간은 그 주변 환경이 지니고 있는 장소성을 결정하는 것이며 유아들도 경험과 관계를 통해 유치원의 공간에서 장소성을 가진다. 장소성은 인간의 실존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를 '장소'라는 공간적 범주로서 탐색하는 것이며 체험의 주체로서의 전체적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총체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논이다. 장소성은 인간의 지각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존재로서의 인간, 환경 속에 존재하는 인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유이며, 인간과 환경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 현상으로 묶어서 의미화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유치원의 장소성은 유아들의 다양한 실존적 경험에 따라 공간에서 나타내는 장소의 의미를 창출하기도 한다.

Olson[6]에 따르면 교실은 자신만의 세계를 창출하는 공간인 동시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개인적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아들은 유치원 공간이 지니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관계를 형성·유지하며 스스로 의미를 경험·표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교육공간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존적 공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Bollnow[7]는 인간에 의해서 경험되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추상적이고 동질적인 공간이 아닌, 실제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교육 공간은 교사의 의도에 따라 공간의 변화가 가능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사가 전달하는 교육내용만을 습득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유아들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경험·표현할 수 있는 존재이며 관계를 형성·유지한다. 그리고 교육공간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존적 공간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공간은 인간의 일상세계와 상호적으로 형성하는 개별적 공간으로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그 정체성이 형성됨으로써 장소성의 성격을 갖게 된다.

렐프(Relpf)는 장소성의 핵심 내용이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에 있다고 하며, 장소 정체성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8]. 그것은 곧 물리적인 환경, 인간 활동, 의미 이 세 가지이다. 인간이든 환경이든 어떤 것의 정체성이란 원칙적으로 다른 것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성과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8]. 그런데 정체성은 인간 활동과 환경, 그 의미의 변증적인 결합과 분리를 통해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양상을 보인다. 장소의 정체성 또한 인간의 관점이 환경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공간이 공적 공간인지 사적 공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더불어 장소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이미지 사이에 발생하는 연계에 따라 서로 달라질 것이다.

유치원을 유아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간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유치원이 가지는 장소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교육 공간으로서 특수성을 지닌 유치원의 공간 구성은 유아들에게는 특별한 장소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때 장소성의 의미를 내포한 유아들의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구성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9]. 그러한 유아들의 교육과 교육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포스트모던의 관점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필요하다. 포스터 모던 관점은 획일적인 통일, 질서유지, 안정성을 이루려는 모더니즘적 노력에 불신과 거부감을 드러내며 질서의 보편성마저 부정한다. 위계질서의 정립에는 간섭이 작용하게 되는데, 결국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10]. 기존의 모던 관점에서는 지식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 절대성, 객관성,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진보의 개념과 발달론적 교육관을 창출한 보편적 타당성 등을 중시했다. 또한 획일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지배적인 담론으로 개별 학생들의 행동과 사고를 제한하는 기관으로 존재해 왔으며, 모던적 교육과정은 보편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질서를 통해 ‘모던적인’ 학생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관점에서는 우리가 창출한 사회적 구성으로 이해하며, 모든 삶의 형식을 포괄하는 보편적 지식을 여러 상황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시각은 유아의 유치원에서의 경험 관련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아의 자유선택놀이에서의 교사의 감독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Tobin[11]은 교실을 원형감독으로 보고 있다. 그는 교사를 유아들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간수로 비유하면서, 과연 교사가 모든 유아들을 항상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 하였다. 유치원에서도 그와 같이 교사가 유아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함으로써 유아들의 보다 자유로운 놀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학교 교육의 주체는 학습자에게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스터모던의 관점이다. 즉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 위주의 장소를 되찾아 주어야 함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12]. 또한 교육활동 및 유아와 교사간의 상호작용, 교사의 학급관리 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살펴보면[7, 13-16] 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은 교사에 의해 부정적 경험을 체험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통해 유아들이 유치원의 공간에서 하는 경험이 교사의 감독적인 역할에 의해 유치원의 공간이 유아를 규제하는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으며, 유아교육에 관한 유아 중심의 재 고찰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유치원의 공간에 대한 이해는 보편적 발달론적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왔으며, 유치원의 공간을 유아들의 실존적 행위가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실존적 공간으로 파악하여 유치원의 주체인 유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하고 그 장소성의 의미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느끼는 실존적 공간이론을 활용하여 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아들의 삶 전반과 관계된 장소성의 의미와 상호작용 및 놀이를 통해 교사와 함께 경험하는 유치원의 장소성과 그들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실존적 공간에서 교사와 유아들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공간의 놀이와 실제생활과 행위가 가지는 장소성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와 교사가 경험하게 되는 유치원의 실존적 공간과 장소성의 의미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참여기관

연구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유치원은 B시에 소재한 J유치원이다.

건물은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 공간은 교무실과 식당, 아뜰리에, 블록방과 2층과 3층은 6개의 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강당으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 연구참여 학급인 가온반은 6세와 7세 교실로 이루어진 3층에 위치하고 있다. 가온반의 실내공간은 정리함과 교구장을 활용하여 세부적 영역을 분리해 놓았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주제중심통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제에 따른 수업 기간은 교사의 계획에 따라 반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신체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실외공간에는 조합놀이대와 모래놀이장, 유아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잔디밭과 텃밭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과정을 병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유치원의 모든 공간을 관찰 대상으로 유아들이 체험하게 되는 교실공간과 바깥놀이 공간, 식당 및 강당, 복도 등 유아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모든 공간들을 포함하고 있다.

### 2.2 연구 참여자

#### 2.2.1 유아

가온반의 유아들은 모두 만 4세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기간 중 담임교사는 남자 유아들은 여자 유아들에 비해 활동적이며 놀이 과정에서 상호작용 및 공간 이동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반면 여자 유아의 경우에는 공간의 활용보다 한 공간에서 놀이를 즐기며,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관찰된다고 하였다.

### 2.2.2 가온반

가온반은 만 4세의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온반 유아들은 등원을 시작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놀이를 계획하여 자유선택놀이 시간을 가진다. 등원이 마무리가 되면 오전 간식인 죽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며 오전 간식이 끝난 후 교실로 돌아와 교사와 아침 모임을 가진다. 아침모임은 오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하며 그날의 주제에 따라 대 소집단 활동을 한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바깥놀이를 진행하며, 오전 일과가 끝난 후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후 종일반 유아들은 종일반 교실로 이동을 한다.

### 2.2.3 가온반 담임교사 : 정 교사

연구 참여자인 정 교사는 D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에 임용되어 지금까지 만 4세반 담임을 맡고 있다.

정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가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놀잇감이 유아들의 놀이를 촉진할 수 있으며 유아들의 놀이 공간 활용을 위해 공간의 영역들이 단순화 되었으면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정교사는 유아와 교사가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2.2.4 연구자

본 연구자는 K대학의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유치원이라는 공간은 유아들을 위한 공간, 유아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유치원의 공간 양상을 볼 때마다 대부분 비슷한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유아들이 유치원이라는 공간에서 형성하는 의미와 그 의미가 표상하는 바, 그리고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나 놀이 등을 관찰하면서 유치원의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

게 되었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실존적 공간의 의미와 장소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제한적인 유치원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재해석이 이루어 질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 2.3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 2.3.1 연구절차

연구에 활용될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연구 참여 기관의 원장과 교사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다른 기관과의 비교함이 아님을 알려 주었다. 아울러 연구목적에 따라 유치원 자유선택일과 중심으로 공간에 따른 유아 간의 상호작용, 유아가 인식하는 공간 등을 관찰하고, 유아들의 놀이에서 보여 지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렇게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연구가 진행 되었다.

### 2.3.2 자료수집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20주에 걸쳐 비참여 관찰 위주로 교사면담 및 유아와의 비형식적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비참여 관찰의 경우 2015년 8월에서 9월에는 유아들의 놀이 선호도 및 놀이의 형태 교사의 교실공간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0월과 11월은 유아간의 놀이형태, 놀이의 상호작용 및 유아들이 선호하는 공간과 유아와 교사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관찰이 이루어졌다. 12월과 2016년 2월까지의 놀이변화의 과정, 유치원공간에 대한 인식과 놀이를 통해 만들어진 장소성, 유아가 의미하는 장소성과 유아와 교사의 공간과 장소성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비참여 관찰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에는 유치원의 실내·외 공간에 대한 관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유아들의 자유선택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이야기 나누기 시간, 대·소집단활동 시간, 실외놀이 시간, 체육활동 시간, 등의 시간을 촬영 및 녹음자료를 중심으로 기록된 자료를 전사하고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 2.4 자료 분석 및 해석

연구의 자료 분석은[17]의 자료 분석 유형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원 자료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수집 된 자료들을

공간과 놀이의 의미가 나타난 부분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둘째, 원 자료로부터 얻어진 텍스트를 확인하며, 공간의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 그것을 다시 분류했다. 범주화된 자료들은 공통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들을 재편성하는 과정을 통해 유목화를 해냈다.

셋째, 앞의 두 단계에서 도출된 핵심 텍스트에 대한 재검검 작업을 했으며 이는 보다 추상성이 증가된 본질적 주제로 분류하는 과정이었다.

위의 단계를 거쳐 형성된 의미들을 개념적 연관성의 확인 작업을 하면서 더욱 구체화된 대주제로 유목화하거나 핵심적인 이론들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이는 내부자의 시각과 경험적 자료에서 근본 내면기제가 되어있는 이론을 찾아내는 것이다[18]. 이렇게 찾아진 근거들과 선택된 범주들은 연구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후 그 해석의 객관화를 유아교육 전문가인 지도교수에게 위해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결과 해석에 대한 자료 분석과정을 공유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의미들이 분류되거나 부각되었는지 확인하며, 자료의 재검증 과정으로 결과 해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 3. 연구결과

#### 3.1 경험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유치원은 유아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치원은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고 체험되어진 과정 속에서 유아간의 관계를 통해 주변상황을 해석하고 유치원 공간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블록 영역에 남자 유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관찰된다. 한 유아는 자신의 상상으로 꾸며진 이야기를 하면서 ‘착한 녀석과 나쁜 녀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블록놀이를 하는 남자 아이 중 한 명이 “나쁜 녀석은 먹어도 되지만 착한 녀석은 먹으면 안 돼.....”라고 하자, 한 유아는 “나는 힘이 없어지고 있어.....”라고 한다. 그러자 다른 유아는 “예방주사를 맞아.” 라며 말한다.*

(2015. 10. 24 관찰일지)

유아들에게는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매체와 동화나 만화, 즉 간접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다. 착한 아이는 힘을 잃으면 안 된다는 점과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더불어 유아들은 예방접종을 통해 나쁜 것들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그것이 최고의 힘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유아들이 체험하게 되는 다양한 공간과의 관계에서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인이와 라현이가 역할영역에서 장난감 화장품을 바닥에 펼쳐 놓고 화장을 하고 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두드리기도 하고, 로션을 바르는 흉내를 내고 있다. 서로 발라 주기도 하다가 화장을 끝내고는 머리를 묶어주는 시늉도 한다. 잠시 후 장난감싱크대 위에서 음식을 만들고 라현이는 설거지 하는 모습을 흉내 낸다.*

(2015. 9. 24. 관찰일지)

다인이와 라현이는 엄마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여자 유아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엄마가 되고자 하기도 하고 유아 자신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 유아들은 엄마의 모습을 자신들의 모습으로 변형한다. 이러한 행동은 유아들의 가정속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를 통해 체험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는 유치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또 다른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 : 뭘 만드니?

수지 : 피자요.

연구자 : 블록으로 만들었어?

수지 : 내가 만든 것 가지고 역할 영역에 가면 좋겠다.

연구자 : 왜 가지고 가면되지?

수지 : 블록 장난감은 여기서만 놀아야 해요

다른 영역에는 가면 안돼요.

(2015. 12. 10. 비형식면담)

유아들은 유치원의 공간이 놀이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각각의 활동을 위해 지정된 영역 안에서 놀이를 해야 하고 자유로운 이동은 제한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때 유아간의 상호작용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며 놀이의 단절로 인해 유아들은 자신의 놀이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이때 교사는 유아간의 놀이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존의 유치원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 3.2 놀이의 공동생산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유아에게 놀이는 탐구의 기초를 마련해줌으로써 흥미의 주도성과 연장을 통해 경험적 활동의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사실과 내적 의미와의 연계성을 배우게 되며, 놀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행위가 된다[19].

*시원이와 규미, 승현이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들기를 하고 있다. 교사는 수민이를 불러 수민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인이와 효인이는 역할영역에서 책읽기 영역으로 옮겨와서 함께 놀고 있다. 효인이는 다인에게 책을 보여주기도 하고 설명도 하며, 또 다시 다인이가 효인이의 행동을 따라 하면서 서로 웃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오늘 이 두 친구의 놀이는 계속 되고 있었다.*

(2015. 11. 12. 관찰일지)

수민이가 친구들에게 놀이를 함께 하자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유아들에게는 자신의 놀이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한다. 수민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는 수민이에게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준다. 효인이와 다인이는 함께 놀이를 하면서 공간과 놀이를 공유하며 놀이를 통해 자신들의 관심거리가 같은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의 놀이를 통해 확장된 놀이를 하게 된다.

*건우와 준성이는 책상 위에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아들의 표정에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놀이를 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교사는 딱지치기를 바닥이 아닌 책상 위에서 하라고 하고 유아들은 바닥에서 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다. 준성이와 건우는 딱지치기 대신 블록과 딱지를 이용해 햄버거를 만들어 놀이를 변형한다. 서로 먹여주는 흉내도 내고 동현이가 지나가자 “햄버거 사세요.”라고 한다. 동현이는 “불고기 버거 있어요.”라며 말하며 그들의 놀이에 관심을 보인다.*

(2015. 11. 19. 관찰일지)

유아들에게 딱지치기는 바닥에서 하는 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제재로 인해 자신들의 놀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유아들은 그 놀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일상에서 얻어진 놀이의 보편적인 경험이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그 유아들은 가지고 놀던 딱지를 자신들이 햄버거라는 다른 놀이로 전환 시킴으로써 햄버거 장사 놀이라는 새로운 놀이를 스스로 찾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두 유아의 놀이에서 시작하여 주변에 있던 유아들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놀이는 점점 확대, 공유되어가는 모습습도 보여 주었다. 유아들은 새로운 놀이를 창출해내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는 것이다.

### 3.3 교육과 생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과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두 관계가 실존적으로 존재한다. 이 두 관계는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교사는 유아들이 등원을 시작하면 유아를 맞이하고 가방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며 가정과의 소통을 위해 그들의 가방을 교사가 확인해준다. 그리고 놀이에 참여를 못한 유아들을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아들이 다양한 영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권하기도 한다.*

(2015. 9. 8. 관찰일지)

유아들의 등원이 시작되는 오전 시간이 교사의 돌봄을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교사들은 유아들이 하루 일과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아와 교사는 충분한 상호작용을 가질 수 없으며 유아들의 놀이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힘들다. 교사는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이 다양한 선택활동을 하는지 살펴야 하고, 교실의 안전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교사 : (발로 블록을 밀어 넣으며) 블록놀이는 여기에서 해야지.*

*건우 : 어?(교사의 표정을 살피며 블록을 가져온다)*

*교사 : 다른 영역 친구들에게 방해되지않아*

*건우 : 이 선 넘어가면 안돼. 저긴 역할영역이잖아...*

*교사 : 블록놀이는 블록영역에서만 하세요.*

*건우 : 이거 만들어서 다른 영역으로 가고 싶은데...*

*교사 :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때는 정리하고 가세요.*

*교실 바닥은 영역을 테이프를 사용해 나누어져 있었다.*

(2015. 10. 20. 비참여 관찰)

교실의 영역 바닥에 붙여 놓은 테이프는 단순히 영역을 나누는 역할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놀이를 단절시키는 기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는 유아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그러한 유아들의 행동이 놀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유아는 자신의 인격이 종속관계를 통해 대상화된 사물로 취급되면 이를 수용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20].

### 3.4 유아들이 경험한 유치원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

유아들은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 환경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과 경험들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실존적·존재론적 기반을 형성하며[21] 자기 인식의 세계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바탕이 되기도 한다.

*유아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하면 처음에는 잘 노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자신이 익숙한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혼자 놀이를 즐기는 유아는 친구들의 방해받기 싫어하고 다른 유아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유아들이 혼자서 노는 모습을 보면 각자가 정에서 노는 모습이 보여요. 형제가 없는 유아는 스스로 놀이를 만들기도 하고 자신이 가장 즐겨하는 놀이를 재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2016. 1. 22. 정교사 면담)

유아에게 특정 장소는 혼자만의 놀이를 즐기거나 혹은 또래들만의 비밀 공간으로서 체험될 때, 유아는 그 장소에 자신들만의 의미를 부가하게 된다. 유아에게 그곳은 이미 교실이라는 일반적인 공간의 의미보다는 자신만의 의미를 내포한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특정한 공간은 재장소화, 재의미화 되어 유아 개인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유아들 스스로가 의미가 부여된 장소를 만든다.

*교사 : 교무실로 가세요.*

*수민 : 안할게요.*

*교사 : 친구 괴롭히면 수민이는 교무실 반 해야한다고 약속했죠?*

*수민 : 내가 먼저 안했는데...*

*교사 : 선생님이 다 봤어요. 수민이가 친구 괴롭히는 거.*

*수민 : 안 그럴게요.*

*교사 : 안 돼요. 내려가지 않으면 원감선생님께 전화할까요?*

*수민 : (우는 흉내를 내며) 싫어요.*

*교사 : 다른 친구들 방해되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수민 : (교사의 눈치만 살피고) 안 할게요.*

(2015. 10. 15. 관찰일지)

수민이는 교사에게 혼이 나고 있다. 수민이는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다른 유아들은 자신들의 놀이를 단절시키고 방해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수민이에게 교사는 특수한 안을 제시하였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에는 '교무실 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민이가 교무실에 내려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자신은 인정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인정해야 하는 장소로 유치원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바깥놀이터에 여자 유아들만 모여 있는 작은 성처럼 생긴 놀이 기구가 있다. 그곳에는 여자 유아들이 성에 매달리기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한 남자 유아가 서성이다가 들어가려고 하자 "안돼, 우리만 들어와야 해"라는 말에 남자 유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고 또 다른 유아가 "안 돼" 여긴 우리 비밀장소 라고 이야기 한다.*

(2015. 10. 8. 관찰일지)

위의 관찰에서는 특정 놀잇감과 공간을 먼저 차지한 한명의 여자 유아가 다른 여자 유아들과 함께 그 공간을 자신들만의 장소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곳에 여자 유아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서로 친한 관계를 형성하는 또래 관계가 만들어 지는데 같은 성(性)을 가지 유아들끼리 더 많은 소통을 하며 서로 공유하는 장소에서는 비언어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간다.

### 3.5 소통에 의해 공유된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인간은 많은 사람 중 자신과 관련이 있거나 비슷하다고 느끼는 관계 일 때 소통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다.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만남이라는 관계를 통해 또 다른 장소가 생성되기도 한다. 또한 유치원 공간은 유아간의 소통에 의해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원희 : 선생님, 여기 누우세요.

교사 : (바닥에 누우며)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콜록 콜록)

원희 : 선생님 아~ 하세요.

교사 : (입을 벌리며) 아~

원희 : 이빨이 썩어서 빼야 해요.

교사 : 배도 많이 아픈데...

원희 : (칭진기를 가지고 와서) 배 속에서 벌레 소리가 나요.

교사 : 벌레가 있어서 아팠나 봐요.

원희 : (종이를 들고 와서) 약 먹으면 안 아파요.

교사 : 네. 감사합니다.

(2015. 10. 27. 관찰일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교사와 유아가 함께 병원놀이를 하고 있다. 교사는 많이 아픈 환자의 흉내를 내자 유아는 자신이 의사가 된 것처럼 진지한 모습으로 진찰하며, 교사와 유아간의 애착을 형성해 나간다. 그런데 교사는 머리가 아프다고 해도 유아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가 썩었다고 일상을 재현 한다. 유치원의 공간은 보편적인 교육 공간의 기능을 가진 공간에서 놀이를 통해 병원이라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유치원은 특별하고 다양한 장소성을 가지게 된다. 교사와 유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장소 의미에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남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바깥놀이터는 언제나 시끌벅적하다. 조합놀이 기구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올라가는 유아는 교사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지 마세요.”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 유아들은 소리를 지르고 놀이기구에 매달리기도 하며 줄을 서서 미끄럼틀을 타기도 한다. 교사는 유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늘 안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의 표정도 교실 안에서보다 훨씬 밝은 것 같다. 유아들은 미끄럼틀 밑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교사에게 가져온다. 교사

가 “와~아” 소리를 지르자 유아들은 그곳으로 모여들고 죽은 벌레를 교사가 들어 올리자 유아들은 “징그러워” 하며 소리를 지르며 뛰어간다.

(2015. 11. 24. 관찰일지)

바깥놀이 공간은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22]. 유아들에게 바깥놀이 공간은 주변 세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들로 구성해 나가는 의미 깊은 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곳으로 의미화 된다. 바깥놀이 공간은 유아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유아들과 비형식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에 더욱 더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가 된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유아들의 반응에 대답을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며 늘 유아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교사는 습관적으로 유아들의 부름에 감탄하거나 반응을 보이는데, 유아들은 교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친화적 반응에 무척 신나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모습에서 바깥놀이 공간은 단순히 유아와 교사가 함께 즐기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사와 유아들의 놀이를 통해 유치원 공간의 실존적 양상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초로 형성되는 유치원의 장소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과 관계를 통해 유치원의 공간은 형성·확장·지속할 수 있는 장소로 유아 개인의 특성이나 요구보다는 집단의 필요성을 일반화 하는 장소로 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며, 그들의 놀이에는 실존적 체험과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유아들의 놀이에서는 유아들이 많이 체험했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아들은 유치원 공간에 유아들 스스로가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놀이를 통해 유치원의 공간을 체험의 재현 공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유치원의 의미가 재창출된다. 일반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보편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유아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결 해 주는 장소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치원은 유아들의 주어진 환경과 일상적인 경험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삶과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유치원의 공간은 특별한 장소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아들의 공간을 단절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실존에 근거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사 스스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유아들의 놀이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절대적인 공간 역할을 강조했던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유아에게 유치원이 의미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유아들의 놀이와 공간은 자아와 타아를 초월한 공동체적 공간으로써 장소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유아들은 놀이가 생활 자체이며, 놀이를 통해 자아를 인지하고 지각한다. 유아는 자신의 흥미와 발달에 기초하여 삶에 필수적인 요소를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도 익히게 된다[23]. 또한 실내 공간에서는 유아 스스로 관심이 가는 영역을 찾아보기도 하고 자신의 놀이 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의 공간도 탐색하기도 한다. 다른 유아들 속에서 자신의 놀이를 찾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실내 공간 각 영역은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고 늦게 등원한 유아는 놀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 바깥놀이 공간은 제한적인 실내공간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놀이를 찾을 수 있으며 유아들도 그들이 선호하는 놀이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런 한편 유아들은 자신의 놀이와 더불어 친구의 놀이를 통해 간접경험과 자신의 놀이를 확장시키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그 중 친구들의 놀이에 더 관심을 가지는 유아는 자신의 놀이를 찾지 못한 유아들이다. 그들은 친구의 만들기를 모방함으로써 함께 새로운 놀잇감을 만들어내고 나만의 놀이가 아닌 다른 친구의 놀이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서 친구의 놀이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것으로 또 다른 놀이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으며 유아들의 놀이는 놀이의 확장과 더불어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셋째, 돌봄이 증시되는 공간으로 유치원의 공간은 안전과 돌봄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 가능성의 공간으로 기본적으로는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사는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누려야 할 즐거움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

으며 교사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고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유치원이라는 특정한 공간이 유아들에게 특별히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인 데다 수업의 구조 역시 유아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24]의 연구와도 상통하는 입장이다.

교사의 이러한 행동은 유아 간의 신체적 마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의 공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유아들 간의 대립이 최소화되게끔 하는 것에 신경을 쓰느라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교사가 관찰하기 쉬운 공간에서 놀이를 하도록 유아들에게 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유아들은 교사와 달리 안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유아는 교사의 존재를 확인하고 요청과 응답으로 유치원 공간의 변화를 이루고 있다. 유아들은 교사를 교육 담당자이자 자신의 안전과 돌봄을 함께 수행해주는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와 함께 있는 공간은 놀이를 하기에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유치원의 공간은 유아들의 요구와 교사의 반응에 따라 놀이의 변형이 이루어지기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유치원의 공간은 주체성과 능동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아들의 경험과 그 재현으로 만들어진 장소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은 유아들이 실존적 존재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21] 유아들이 주변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유아들은 유치원 내에서 일반적인 공간의 의미가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재탄생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유아들의 공간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을 능동적으로 창출해내고자 하는 그들의 의사를 교사는 존중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복도와 교무실의 공간은 고유성 또는 규칙을 지켜야 하는 교실과는 다른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교무실은 유아들에게 교사들만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특정한 장소의 역할만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복도와 교무실은 유아가 혼이 날 때 가야하는 장소로 필요에 의해 구성되어진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있었는데, 교사는 유치원의 공간을 유아들의 공간이 아닌 유아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변형 및 활용하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교사의 통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유아는 교사에게 저항하는 아이로 여겨지며 이러한 유아의 힘을 조직적인 통제으로써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교사도 있다

는 보고도 있는 실정이다[25].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교사는 유치원의 공간을 유아를 분리시키거나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유치원의 모든 공간은 유아들이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유치원의 공간과 장소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의식이 전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유치원이라는 공간에서는 유아들의 등원을 통해 만남이라는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간이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장소성이 형성된다. 유아들은 유치원에서는 항상 다른 유아와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러한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닳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함께 체험한 경험과 흥미 있는 일, 그리고 자신만의 물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경험과 그 재현인 놀이를 통해 확장해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치원의 공간을 특별하고 예외적인 장소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선보[26]는 Buber의 만남철학과 교육관에 교사와 유아는 상호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교사와 유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아와 교사의 관계는 사랑의 포용성을 바탕으로, 유치원의 공간 속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알아야 한다. 유아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교사에게 드러냄으로써 서로에게 다가간다. 즉 상호 포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상대방의 삶에 동참함으로써 교사와 유아는 각자 실존적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교사와 유아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교사와 유아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인격을 온전하게 대면할 수 있으며 유치원 공간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사와 유아간의 대화는 인간행위이며 그들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서로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빈번한 상호작용과 함께 경험함으로써 공동체적 장소성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

유치원의 공간에 나타나는 장소성은 유아들이 자신이 경험한 환경과 연관되는 체험과 다른 유아들의 놀이를 통해 관계의 연속을 이루고 있었는데, 주변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실존적 공간의 의미를 발현해 내고 있었다. 유아들이 유치원의 공간을 자신들의 경험

을 토대로 새롭게 조직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듯 유치원은 유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놀이에 의해 재구성되거나 실존적으로 의미화 될 수 있는 공간이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유치원의 정형화된 유치원의 공간구성에서 벗어나 유아들이 주변세계를 통해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 장소성의 의미를 공간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교사는 유치원에 유아들이 또래를 만나게 되는 장소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유치원 운영과 학부모들의 요구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교육적 의미보다는 안전과 돌봄을 최우선 시하고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는 충실히 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교사는 유아에게 영역에 따른 놀이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가 교사의 교육적 철학에 따라 행동하거나 안전과 규칙, 공간 역할 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교사의 입장 보다는 유아들의 요구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사는 유치원의 공간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공간을 변형할 수 있다는 인식 변화를 추구할 때 진정한 장성을 획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REFERENCES

- [1] S. Y. Kwom, J. H. jung, S. M. Park, "Exploring the Meaning of Outdoor Play Spaces Perceived by Young Children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 pp.85-94, 2017.
- [2] Y. S. Kim, "Socio-cultural Reconstruction of Space Text and Space Storytelling -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Gumdang and Chuncheon", Korea Humanities Content Society, Vol.- No.19, pp35-59, 2017.
- [3] K. H. Kim, "Existence, space, architecture", Seoul: Taerim Cultural History, p-7, 2002.
- [4] K. S. Lee, "Presence and time", Seoul: Magpie, 2006.
- [5] E. W. Soja,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Towards a Transformative Rethorization." D Gregory and J. Urry(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1985.
- [6] M. Olson, "Room for learning", Phenomenology-Pedagogy,

- Vol.7, pp.173-186, 1989.
- [7] O. F. Bollnow, "Anthropology of education", Seoul: Moon Sung-sa, 1999.
- [8] Relpf. E, "Place and Placelessness ", Seoul: Lunheng, 2014.
- [9] S. Y. Kwon, "A Sense of Place of Kindergartens as Existential Space in Which Children and Teachers Experience", Ed. D. dissertation, Kyung Sung University, 2017.
- [10] O. S. Yang, "Early Childhood Curriculum Inquiry in a Reconceptualist Perspective ",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Vol. 22, pp. 139-170, 2000.
- [11] Tobin, J, "Post stuctral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pp223-243, Westport: Praeger, 1995.
- [12] O. S. Yang, "Postmodern Perspectiv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of Free Play=The Reconceptualization of Early Childhood School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20, No. 1, pp. 53-73, 2002.
- [13] D. Jardine, "Reflection on phenomenology, pedagogy, and Phenomenology + Pedagogy", Vol.6, No.3, pp. 158-160, 1988.
- [14] E. S. Na, "Meaning of Free Choice Activities to Young Children", Ed. D. dissertatiom, Duksung Women's University, 2005.
- [15] E. M. Shin, "A Study on Teacher's Power / Knowledge in Kindergarten Curriculum", Ed. D.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2005.
- [16] O. S. Yang, "The Significance of Choice in Free-Choice Activities",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ssociation, Vol. 23, No. 3, pp. 131-152, 2003.
- [17] M. V. Manen., & B. Levering, " hildhood's secrets; Intimacy, privacy and reconsidered", NY: Teachers Coiieg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18] H. C. Ryu, "Bernard Tschumi", Construction and demolition, Vol. 2, 2002.
- [19] F. Wardle, "Alternatives bruderhof education: Outdoor school. Young Childre", Vol. 50, No, 3, pp. 68-73, 1995.
- [20] Y. K. Yoo, "The Educational Meanings of Martin Buber's 'I-Thou Relationship'", Master's thesis,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0.
- [21] V. P. Suransky, "The ersion of childhood", Chicag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oul: Kyobo Book Center, 1982.
- [22] P. Blatchford. & S. Sharp (eds.), " Breaktime and the school-understandin and changing playground behavior.", London: Routledge, 1994.
- [23] Gestwicki. C, "Dev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Curriculum And Development in Early Education ", Seoul: Jeongminsa, 2008.
- [24] B. Y. Lim, H. R. Yang, J. Y. Song, "The meanings of classroom space as a place where children experience ",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7, No.4, pp.249-272, 2012.
- [25] M. G. Koh, "The Meaning of Preschool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on Controlling Children's Behavior ",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5, No.2, pp. 206-231, 2001.
- [26] S. B. Kang, "Educational philosophy of meeting Martin", Seoul: One Mission, 2005.

권 선 영(Kwon, Sun young)

[정회원]



- 2017년 2월 :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경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 유치원공간, 놀이

▪ E-Mail : 3881511@hanmail.net